

14일 Market Index			
코스피	7981.41	코스닥	1191.09
	(+137.40)		(+14.16)
금리	3.654	환율	1488.55
	(+0.019)		(-2.05)

경주 방패장 가보니
지진·산불도 견뎌
300년간 '철통방어'
04



美 국채 지옥문 개방... 글로벌 금융불안 고개

삼성 "대화하자" 손 뿌리친 노조 '긴급조정권' 거론

고금리의 습격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금리가 연 5% 선을 넘어섰다. 글로벌 장기 시중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해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5%'벽을 넘어설 데세다. 시장에서는 "파멸(doom)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발 글로벌 '금리 발작' (금리의 비정상적 급등)이 국내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반도체에 편중된 성장 속에서 치솟는 금리는 중소·중견 기업에 큰 부담이다. 외국인 자금도 더 높은 금리를 쫓고 있어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든다.

◆美 국채 금리 '마지노선'

13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이뤄진 250억 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미국채 입찰 결과 낙찰 금리가 5.046%로 결정됐다. 발행시장에서 미국채 30년물 입찰 금리가 5%를 넘긴 것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채 30년물이 19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에 낙찰됐다는 의미다.

미국채 30년물 금리 5% 넘어서 19년 만에 최저가로 낙찰된 셈 국내 10년만기 국채금리 4%대 경기회복 더더... 개인·기업 부담

미국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은 인플레이션과 연방정부 재정 악화, 유럽에 이은 중동에서의 전쟁, 국제유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전자거래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미국채 30년물 금리는 지난 전쟁 발발 직전 4.63% 수준에서 13일 5.03%로 0.40%포인트 올랐다. 미국채 30년물 금리는 미국 주택 구매자들의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나 우량 회사채의 준거 금리 역할을 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마이클 하넷 최고투자전략가는 최근 투자자 노트에서 미국채 30년물 금리 5%를 '마지노선'이라고 지적하고, 채권 금리가 이 문턱을 뚫을 경우 "파멸(doom)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기의 바로미터이자 국제 금융시장의 기준이 되는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 급등세(채권가격 약세)가 심상치 않다. 이날 기준 4.47%까지 뛰었다. **(2면에 계속)**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본관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AP 뉴시스

"대만 처리 잘못하면 충돌" 트럼프에 경고

(시진핑 中 국가주석)

美·中 정상회담

트럼프 "시진핑은 위대한 지도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년 만에 14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신홍강 대국이 필연적으로 기존 패권국과 충돌한다는 의미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단어를 거론하며 양국 간 공존을 강조했다. 또, 중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대만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뒤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주기도 했다.

14일 외신을 종합해보면, 시 주석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미 관계의 안정은 세계에 호재"라며 대국(大國)이 올바른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넘어설 수 있을지,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수 있는지는 역사적 질문"이라며 "나와 당신이 대국의 지도자로서 함께 써내려 가야 할 시대의 응답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신홍강 대국에 대한 두려움이 전쟁을 불러일으킨다

고 주장한 고대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명제를 재정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다. 때때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를 미국 측이 주장하는 '5B'와 중국 측이 원하는 '3T'로 분석했다. 5B는 중국의 보잉 항공기 구매, 미국산 쇠고기·콩 구매, 투자위원회와 무역위원회 설립을 의미한다. 3T는 관세, 기술, 대만등을 뜻한다. /최규춘 기자 ch9720@

내란세력 척결 vs 정권 견제 '표심 공략'

6·3 지선 오늘까지 후보등록

시·도지사 비롯, 자치단체장 등 선출권 정부 출범이후 첫 전국단위 선거

6·3 지방선거가 본격 레이스에 접어든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이 14~15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선거가 진행되며, 부산북구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

궐선거도 진행된다. <관련기사 6면>

이번 6·3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국단위의 선거라는 점에서 국민이 어떤 후보자를 뽑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를 각각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여야는 이미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선 준비를 마쳤다.

중앙선관위는 이날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에서 1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며 후보자등록 상황과 후보자

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입후보경력 등은 다음 달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s://info.nec.go.kr)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까지다. 이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교육감선거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을 제출하면 된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metro

한반도체 전문가는 "이미 노조 측이 협상태이블을 박차고 강경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자율해결만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이라는 법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국가 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차현정 기자 hyeon@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조국 "평택 '공공의료원' 설치...국공립어린이집 더 확충" /사진 뉴시스
▲정동영, 탈북 아동·청소년에 서한... "평화로운 한반도 밀거름"

▲추미애 "경기북부를 첨단 거점으로"...항공·우주·MRO 공약
▲송언석 "정원오, 본인 폭력 미화 위해 5·18 민주화운동 이용"

▲국힘 "박상용 징계 사유 '언어 솔파티'는 결국 거짓"...與국조특위 고발
▲"대통령도 죄 지으면 감옥" 野 현수막에... "그래서尹 갔다" 맞불